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체벌실태 및 체벌수준에 따른 아동의 분노표현 행동

남 원 희*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 석사4차)

현 운 강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인간은 가정에서 최초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학습하며, 전통적으로 유교적 경향을 갖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동들의 생활이 성인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며 일상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한 표현인 분노감정이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은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노와 적개심이 불안, 신경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범죄나 폭력을 유발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분노 감정 유발에는 가정의 영향이 가장 크며 대표적인 예로써 체벌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폭력이나 학대와는 다른 개념으로 어머니께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벌, 즉 아동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만 정하여 실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체벌이 아동의 분노 표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바람직한 자녀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인천광역시 공립·사립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배경변인에 관한 질문지, 체벌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체벌수준에 관한 질문지, 아동의 분노표출 진단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상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체벌실태 분석
2. 아동의 배경변인(성별, 학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직업 유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체벌 수준의 차이
3. 체벌을 받은 후 분노표현(외적·내적 분노)의 경향
4. 체벌실태에 따른 분노표현(외적·내적 분노)의 유의한 차이
5. 체벌수준이 분노표현(외적·내적 분노)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결과로는 조사대상의 90%이상이 체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어머니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체벌하지만 갑자기 분노나 화를 내며 체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아동의 50% 이상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체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체벌을 받은 후 외적보다는 내적 분노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속으로 삭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체벌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동의 내적 분노표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은 매를 맞는 것 보다 말로 타일러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매를 맞는 집단이 좋은 말로 타이르는 집단보다 내적·외적 분노 표현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체벌은 뉘우침보다는 아동의 분노발산을 일으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